

사설

정부가 경청해야 할 4대강 심포지엄

이명박 대통령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3년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매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를 직접 챙겼다. 지난해에는 친기업·부자정책에서 친서민 쪽으로 방향을 선회, 경제난으로 인한 서민의 고통을 감소하는 정책의 추진을 독려했고 있다. 이 대통령 2년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제 부문에서는 대체로 기본은 했다고 평가했지만, 정치와 사회 부문에서는 오히려 뒷걸음질했다는 평가다. 세종시 문제와 4대강 개발의 일방적 추진이 그 근거로 제시된다. 여야, 여여, 대통령과 시민단체, 지역, 이념에 따른 갈등이 그치지 않았다.

검토되어야 하고, 4대강을 살리는 지혜를 국민들에게 구해야 한다. 누구도 4대강을 살리지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국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강을 파내고 독을 쌓는 토목공사 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더 속고 하야야 한다는 의견이다. 내일 불교환경연대와 예코부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라는 제목의 심포지엄이 열린다. 두 단체는 4대강을 살리기 위한 대안 찾기에 힘을 쏟아왔다. 그 결과물을 발표해 각계의 의견을 들겠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을 불교적·환경생태적·사회문화적·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와 여야 정당에서도 경청하고 강을 살리는 대안이 진정한 것인지 숙고하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

갈등의 불씨 될까 염려스럽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25일 열린 회의에서 임기 만료되는 2명의 동국대학교 이사를 뒤이어 후보를 선출했다. 그런데 자칫 종단 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조계종 내 특정계파에 속한 스님들이 동국대학교 이사로 진출하려는 정치 의도의 선출이라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사후보로 뽑힌 선각 스님과 종호 스님은 보림회에 속해 있다. 당장 월정사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출자 사찰에 이사를 배정하는 것은 오랜 불문율이었던 만큼 동국대학교 설립에 가장 많은 재산을 출연한 월정사의 기여도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재선출을 요구하고 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이사후보를 선출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투표까지 갔다는 것을 보면 기준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였기보다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조계종단 정치의 연장선에 놓여 늘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일이 또 다시 스승들이나 스승들이나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민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이지만, 힘의 논리이기도 하다. 불문율이 늘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관행을 만들면서 다수의 힘에 기대어서도 안 된다. 종단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비움'이 있어야 한다.

신라시대에 지어진 황룡사에서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불사가 진행됐다. 이것을 보면 사찰은 그 형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유기체와 같이 계속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찰의 변화는 불사를 통해서 이뤄지게 되는데, 어떤 사찰이든지 시대의 요구와 사찰이 가진 기능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크고 작은 불사가 없을 수 없다.

최근 사찰에서 진행되는 잘못된 불사에 관한 논의가 다시금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잘못된 불사라는 것은 사찰이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진정성이나 완전성을 훼손한다거나 사찰경역 내외부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불사를 말한다. 사찰의 불사는 필요하고 잘못된 불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불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공감하는 기본적인 명제인 것이다. 사찰환경의 훼손이 반드시 잘못된 불사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찰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체에 의한 환경훼손이나 기존에 유지되어 온 음식점이나 놀이 시설 같은 상업적 행위 역시 사찰환경을 훼손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우리 불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사찰의 필요나 요구에 의한 불사에서 비롯되는 사찰환경의 훼손이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찰이 담당해야 하



불자 세상보기

홍광표
동국대 사찰조경연구소 소장

바람직한 불사를 위한 조건

는 기능이 달라지고 있다.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건물이나 공간의 유형이나 용량이 과거와는 달라졌다. 이것을 생각하면 사찰에서 요구하는 불사의 필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러나 사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불사를 진행하는 것은 역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시대에 요구되는 지혜로운 불사의 자세와 방향 몇 가지를 제시해본다. 첫째, 과거와는 달리 이제 사찰의 성격이나 기능을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대는 전문성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사찰 역시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종림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저런 기능을 모두 갖춘 백화점식 사찰은 이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사찰의 역사와 환경 조건에 따라서 가장 자신 있는 기능을 담고 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사찰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사찰의 원형을 훼손할 정도의 지나친 불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둘째, 문화재보유사찰이나 전통사찰의 경우 불가피하게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승되어 내려온 영역과 공간적, 시각적으로 분리된 장소를 택하여 불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

능은 새로운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전통과 현대가 상충되지 않게 되며, 경관적으로도 부조화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문화재보호법이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찰환경의 보존과 연관되는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불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찰에 필요한 불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화재보존영향 사전검토나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불사를 진행한다면 불사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떠한 불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넷째, 종단차원에서 가장 불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하여 종단소속사찰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각종 불사를 사전에 심의하고 관리 감독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될 경우 불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방어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불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법률적, 행정적 규제와 사찰측의 요구를 중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해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사 : (054)634-3429
충청지사 : (043)732-5560 부산지사 : (051)632-0064
전북지사 : (063)910-8977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범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강남교회가 불교를 깨부수는데 앞장서자!...불경에는 성경의 감동도 없고 귀신들만 있어!...스님들도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 되는 거여!...스님 5만 명을 전도해서 전부 기독교 신자로 만드는데 앞장 설 거다!" 강남교회 박성광 목사가 얼마 전 자신이 당회장으로 있는 교회에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슨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서울 최고의 강남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인용하기에도 민망한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멘! 할렘무야! 하며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쳤답니다.

몇 년 전 기독교 신자가 사찰에 난입해서 불상을 파괴하고, 스프레이 페인트로 십자가를 그리고,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종교를 연구하는 여러 나라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화회의 주제로 다뤄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 일을 '일부 광신자들이 그러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 일이 생각납니다. 허나 이번 일은 보통문제라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조만간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종교를 이유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종교간 무력충돌을 빚어 수백 명의 사람이 죽고, 수백 채의 종교건물이 부서지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무력충돌까지 이런 사건을 살펴보다 보복 등의 이유로 되풀이된다는 것을 알았고, 갈등



사부대중 테마갈럼

마가 스님
천안 만일사 주지

박성광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의 당사자로 늘 유일신교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방적인 가해와 피해는 있을지언정 서로가 충돌하는 양상이 없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를 두고 종교학자들은 관용을 품성으로 불교가 우리나라 종교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상식을 벗어나는 종교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일부 종교의 막나가는 것을 제어하고,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는 몇몇 사람에게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반 정도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유일신을 믿는 목사로서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당연하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전해주는 금메달 소식을 즐겨왔는데, 미국 선수 중에 오노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는 우리에게 반칙왕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허나 미국에선 국민적 영웅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 전 서울방송의 한 스포츠 해설위원 한 사람이 중도에 그만 두었습니다. 피성을 지르는 해설에 시청자들의 항의가 자자했던 터인데, 생방송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여쭙지않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과문을 내고 본인이 사퇴해 이 일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박성광 목사님이나 그의 타종교를 비방하고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분들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종교가 없는 분들로부터 비난을 받지만, 자기 교단에선 영웅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교지도자가 한번 내뱉는 말에 대해 그를 따르는 신자들은 깊이 사유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유일신교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으로 쇠뇌가 되어버렸기에 그냥 "믿습시다"하면 됩니다. 허나그때 영광 불리는 일이라 생각하면 무슨 일인데 저지릅니다. 공공장소에서 확성기로 떠들고, 지나가는 타종교인들까지 "예수 믿어라!" "사탄아 틀러가라!"고 연치없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불교가 목사님의 놀림 대상이 될 정도로 추락했구나! 공부 잘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퍼야 되겠구나! 타종교를 좀 더 알고 그들과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등 등 궁성의 마음을 갖습니다. 박 목사님 말에 너무 크게 반응 할 필요 없습니다. 박 목사님은 오히려 1등 포교사입니다. 100명의 사람에게 물어봐도 기독교의 독선을 애기하지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신자들도 박 목사의 말에 고개를 가우뚱 거립니다. 다만 맹목적인 일부 신자들이 큰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까 걱정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포교하라는 책필로 삼으십시오. 박성광 목사님이 탐·진·치 삼독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화제의 신간

누 · 구 · 나 · 습 · 게 · 이 · 해 · 하 · 고 · 배 · 울 · 수 · 있 · 는 !!

핵·심·사·주

1천여 년만에 탄생하는 새로운 정법 학술 !!

四柱學의 초보자나 학생, 전문가, 결혼 중개사는 꼭 배워야하는 四柱學의 秘傳으로 누구나 이 책 한권으로 한번만 읽어도 쉽게 專門家가 될 수 있도록 核心만을 간추렸다. 대대로 수제자들에게만 전해져온 사주풀이의 비법을 공개한 이 책은 기존 대부분의 사주풀이 방법을 완전 뒤집은 진정한 사주풀이의 혁명적 책이 될 것이다. 특히 여자사주와 궁합의 원리는 한국 古代 道人들로부터 秘傳으로 傳受되어온 秘法으로 天氣를 누설한 四柱學의 革命을 가져올 力作이다.

이제 천기를 누설 한다 !!

기존의 사주학 학술로는 오직 개인의 숙명의 귀, 천 만을 알 수 있고 미래 운명의 예측은 50여%에 미달하고 전혀 반대되는 운명을 예측하는 오류가 있다. 본 "핵심사주"는 1천여 년 만에 사주학의 올바른 정법 법칙을 완성한 역작이다!!

왜 핵심사주인가.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최초로 공개되는 궁합의 비법!!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鄭炳玉 博士 지음 / 신국판 / 336쪽 / 정가 25,000원


육임이 보인다 功念 지음 / 4x6배판/양장본/70,000원 신국판/청산 김성진 지음/35,000원	신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송월 스님 지음/양장본/45,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자/신국판/양장본/50,000원 4x6배판/이선암,전호일 공저/양장본/25,000원	四柱命理 韓方處方學 徐昇煥 지음/4x6배판/양장본 I 권 880쪽 II 권 680쪽/각 권 50,000원	풍수 양택통론 신국판/양장본/신명 지음/26,000원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전통범음범패(바라,나비작법) 과정 수강생모집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0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1년)**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 주 : 도량석, 종송등
 - 예 경 : 향수해례, 사성례,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예불
 - 권 공 : 삼보통칭, 상단·중단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배비이운), 대령, 관육, 용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송, 요집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달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 김범은 스님, 이현진 스님
- 입학식 및 개강일시**
 - 입 학 식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전 11시
 - 개 강 : 2010년 3월 18일(목요일) 오후 1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강의장소** : 경북교구 중무원 설법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종무원에서 교부)
- 접 수 처** :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경북 경산시 와촌면 동강 2리 265)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53)857-4339, 팩스 053)857-0206



한국불교 태고종 경북교구 중무원 범음,범패 교육원